

사생활 무단으로 촬영·복사·배포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합니다.

**임팩트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점도 완공 (명동출발점IC 영수증 프린트 개시)
- 무전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산세 실시
- 예약: www.hpdyunashy.co.kr 0801-320-7700

## 두산 리그 2위 롯데



# 팀·개인 경쟁 끝나지 않았다

4강 확정으로 한풀 쉼이 끝난 2008 시즌 프로야구의 열기가 안갯속에서 가려진 팀 순위와 개인 타이틀 경쟁으로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1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면서 4강 윤곽이 완성됐지만 아직 2위 싸움이 한창이다. 플레이오프 자격이라는 티켓이 걸린 만큼 2위 두산과 3위 롯데는 마지막 경기까지 총력을 펼쳐야 한다.

유리한 고지는 두산이 차지했다. 9월 30일 현재 1.5게임차로 롯데를 누르고 2위를 지키고 있는 두산은 남은 4경기에서 2승을 챙기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롯데는 남아 있는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둔 뒤 두산이 1승3패로 시즌을 마무리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LG는 실낱같은 '탈꼴찌' 꿈을 남겨두고 있다. 9월 마지막날 잠실에서 펼쳐진 그들만의 리그에서 LG는 히어로즈에 2-1 승리를 거두며 탈꼴찌를 향한 마지막 불씨를 살려두었다. 가까스로 탈꼴찌 가능성을 열어 줬으나 같은 협난하다. LG의 3연승, 히어로즈의 5연패가 공동 7위를 위한 공식이다.

가르시아(롯데)에게 무게가 실렸던



두산 1.5게임 차로 2위

3위 롯데, 뒤집기 총력

김태균 홈런 31개 선두

가르시아 1개차 맹추격

홈런왕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화의 김태균이 지난달 30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19일 만에 시즌 31호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가르시아를 밀어내고 단독 선두로 치고 나섰다.

방심하기에는 이르다. 3경기가 남은 가르시아에 대해 김태균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어 경기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타점왕을 굳힌 가르시아가 홈런왕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시즌 MVP를 노리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가르시아와 김태균은 4일 각각 약체

LG와 우리를 상대로 최후의 홈런포를 가동한다. 홈런왕은 두 팀의 마지막 경기가 치러지는 4일날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탈삼진 경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류현진이 지난달 30일 탈삼진 4개를 추가하며 143개로 2위 SK 와이번스 김광현(138개)과의 격차를 5개로 벌려놓았다. 하지만 2일 KIA 타이거즈와의 광주 경기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김광현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김광현은 올 시즌 KIA를 상대로 4경기에 등판해 모두 승을 챙겼다. KIA 타자들에게 베푼 삼진수는 22개, 경기마다 5.5개라는 계산이 나오는 만큼 '투수 3관왕'을 향한 김광현의 발걸음이 가볍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탈삼진왕 확정이 4일로 미뤄질 수 있다. '3년 연속 탈삼진왕'을 노리는 류현진이 4일 재등판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자책점에서 2위 김광현(2.50)이 4이닝 이상 무실점을 하면 1위 KIA 윤석민(2.44)과 순위가 뒤바뀐다. 김광현의 투구 내용에 따라 어깨피로 탓에 2군에 머물고 있는 윤석민이 1군행을 선택해 1위 탈환에 나설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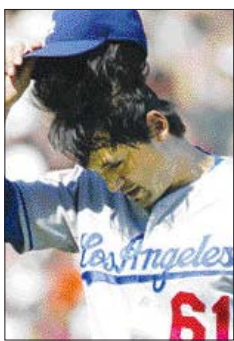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가르시아 홈런왕 김태균



## 메이저 리그 소식

### 박찬호 '재기상' 실패



박찬호(35·LA 다저스·사진)의 올해의 재기선수상 수상이 좌절됐다.

미국프로야구 홈페이지는 1일 좌투수 클리프 리(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우투수 브래드 리지(필라델피아 필리스)가 각각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 올해의 재기선수상을 받는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서 활동하는 각 구단 기자들의 투표 결과 내셔널리그 올해의 재기선수상 후보 11명 중 박찬호는 3위표 1표를 얻어 1점을 얻는데 그쳤다.

41번의 찬스에서 모두 세이브를 성공해 100% 세이브 성공률을 자랑하고 2승 무패, 평균자책점 1.95의 좋은 성적을 올린 리지는 1위 12표, 2위 7표 3위 3표 등 총 53표를 얻어 시카고 컵스 마무리 케리 우드(34표)를 제치고 가장 성공적인 재기 선수로 평가받았다.

### 화이트삭스 포스트시즌 진출

호화군단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미네소타 트윈스를 누르고 미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막차를 탔다.

화이트삭스는 1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US 셀룰러 필드에서 벌어진 미네소타와 포스트시즌 진출을 놓고 치른 단판 승부에서 짐 토미의 결승 홈런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양팀은 88승74패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공동 선두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지구 우승팀이자 포스트시즌 진출팀을 가리기 위한 단판 승부인 '타이 브레이크'를 벌였다.

지구 챔피언 오른 화이트삭스는 동부지구 1위 탬파베이 레이스와 3일 새벽 3시30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5전3선승제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아깝게 무릎을 꿇은 미네소타는 리그 와일드카드도 보스턴 레드삭스에 빼앗겨 시즌을 접었다.

화이트삭스는 월드시리즈를 제패했던 2005년 이후 3년 만에 가을 잔치에 참가,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베이징올림픽 '동' 박미영 탈락 이변

1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 추계 회장기 한국실업탁구대회' 여자부 16강전에서 박미영(삼성생명)이 고소미(대한항공)에게 커트공격을 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박미영이 2-4로 고소미에게 패했다. /연합뉴스

## 안선주 '사이클 버디' 행진... 공동 선두

### KLPGA 삼성금융레이디스 1R

올해 준우승 징크스에 빠져든 '장타왕' 안선주(21·하이마트)가 첫 우승 기회를 잡았다.

안선주는 1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파72·6천26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삼성금융레이디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7개를 쏟아내며 장타왕(22·하이마트)과 공동 선두에 나섰다.

지난해 3승을 올리며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 지은희(21·휠라코리아)와 '삼국지'를 연출했던 안선주는 올해 한 번도 우승이 없어 상금랭킹 8위로 밀려 있는 처지. 평균타수 4위(71.47타)가 말해주듯 기량은 여전히지만 승운이 따라 주지 않아 준우승만 세차례였다.

그동안 불운에 한풀이를 하듯 안선주는

매홀 버디를 노리는 절정의 샷을 뽑아냈다. 270야드는 가볍게 넘어가는 장타력을 앞세워 파5홀 4곳에서 모두 버디를 뽑아냈고 6번(파4), 7번(파5), 8번홀(파3)에서는 이른바 '사이클 버디' 행진을 벌였다.

경기를 먼저 끝낸 장지혜를 추격하다 16번(파4), 17번홀(파4) 연속 버디를 잡아내 공동 선두가 된 안선주는 18번홀(파4)에서 2m 버디 퍼트를 놓친 것이 다소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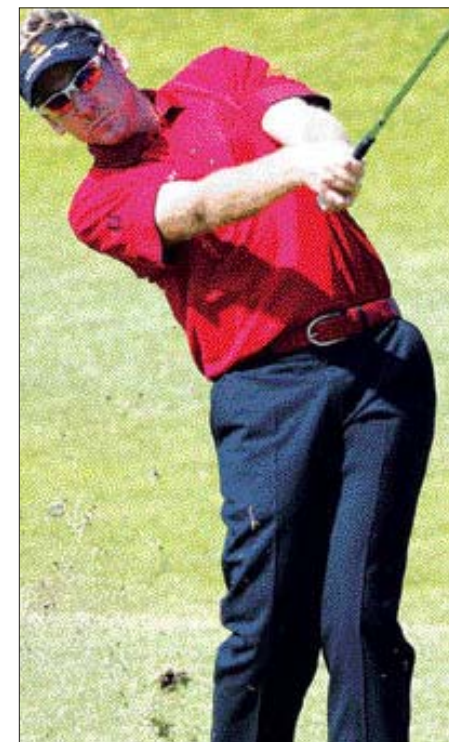
작년에 데뷔해 올해까지 '톱10'에 세차례 입상했을 뿐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 무명 장지혜는 보기없이 버디 7개를 몰아쳐 생애 최소타를 몰아쳐 깜짝 선두에 나섰다.

올해 들어 드라이버를 제대로 치지 못해 하위권을 맴돌던 장지혜는 한달 전 대회 1라운드에서 82타를 친 뒤 "이왕 이렇게 된 것 드라이버나 마음껏 휘둘러 보자"며 2라운드에 나선 결과 1인타를 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정상을 향해

1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에서 열린 51회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프로암 경기 5번홀에서 티샷하고 있는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왼쪽)과 6번홀서 세컨드 샷하고 있는 이만 폴터. /연합뉴스



## F1 시범주행 보러 오세요

5일 낮 12시 금남로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에 출전하는 실제 경주용 자동차가 오는 5일 광주 금남로에서 시범 주행을 한다.

1일 전남도와 F1 한국 그랑프리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에 따르면 F1 한국 유치 확정 2주년 기념행사로 'F1 머신 데모런'(시내주행) 행사를 오는 5일 오후 12시 금남로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현재 2008 시즌 F1 그랑프리에 참가하고 있는 BMW 자우버 팀의 주전 드라이버인 니하이드펠트가 실제 경주차량을 가지고 직접 팬들 앞에 선보인다.

그동안 각종 모터쇼나 전시를 위해 모험 차가 국내에 들어온 일은 있었지만 주행할 수 있는 실전 F1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

F1 차량의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발 비용과 부품값 등을 근거로 추정하면 1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를 위해 보장액 160억원 규모의 손해보험에도 가입했다.

광주를 찾는 F1 차량은 최대 출력 780마력, 최고 시속 355km로 금남로 1가에서 3가까지 통제된 도로구간에서 주행 속도를 뽐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드라이빙 마니아로 알려진 텔런트 이세창과 가수 한영의 사회로 진행되며 인기밴드인 크라이벳과 디비치, 기타리스트 김세황 등의 공연도 함께 열린다.

F1 한국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7년간 영암에 건립 중인 F1 경주장에서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

## 이형택 ATP 재팬오픈 탈락

이형택(32·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AIG재팬오픈 단식 2회전에서 탈락했다.

세계 랭킹 155위 이형택은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단식 2회전에서 라이너 슈틀러(35위·독일)에 1-2(3-6 7-6(3) 3-6)로 져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3세트 게임스코어 3-5로 뒤진 상황에서 이형택은 이어진 슈틀러의 서브 게임을 0-30까지 앞서 브레이크 기회를 잡았으나 내리 4포인트를 내주며 역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10월에 이형택은 전국체전 단체전, 삼성증권배와 벤틀시장배 웰턴 대회에 출전하며 주로 국내에서 일정을 보낼 계획이다.

## 미치 타이론 우즈 방출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가 올 시즌 후 주포 타이론 우즈(39)를 방출하고 메이저리그에서 푼 거물 외야수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일본 스포츠전문지 '데일리 스포츠'가 1일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메이저리그 출신 외야수 영입은 이병규(34)의 입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데일리 스포츠'는 주니치가 서둘러 내년 시즌 전력 준비에 착수했다며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긴조 야스히코(32)를 데려오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2003년, 2004년, 2006년 세 차례나 리그 홈런왕을 차지한 타이론 우즈는 엄청난 파워를 앞세운 장쾌한 홈런으로 강한 인상상을 남겼지만 나이에 따른 잦은 부상으로 올해 타율은 0.276에 그쳤고 타점은 72타점에 머물렀다. 홈런은 33개를 기록 중이다.